

## OG2) 꽃예술장식 화훼 소재로 이용되는 자생식물 현황에 대한 연구

박소영\*, 안영희, 방 식<sup>1</sup>

중앙대학교 식물응용과학과, <sup>1</sup>마에스터 슬레

### 1. 서 론

최근 화훼의 다양한 역할증대로 인해 꽃 소비량의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김, 2001), 더불어 실내식물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쾌적하고 아름다운 생활환경을 추구하고 화훼를 이용한 꽃예술장식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또한 화훼식물의 이용은 정적(靜的)인, 미적(美的)감상, 실내외 장식공간의 다양화와 더불어 (민, 2005) 다양한 공간 영역으로 이용되어 지고 있다.

화훼소재는 주소재인 식물소재와 식물외 소재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민, 2005). 식물소재의 경우 원예용으로 재배되어진 다양한 소재들과 더불어 자생식물이 화훼소재로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많은 자생식물이 화훼시장에서 유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통되고 있는 수에 비해 판매자나 구매자에게 많은 각광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자생식물보다는 귀화식물이나 외국에서 도입되어 재배되고 있는 화훼들이 많이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자생식물이 생산, 판매되고 있다하더라도 실제 꽃장식예술이나 일상생활에서 이용되고 있는 경우는 실내조경공간 82개소를 조사한 결과 총 19과 27종에 속하는 식물만이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이, 2002)

이에 본 연구는 국내 화훼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자생식물을 조사, 분석하고, DB를 구축하여 꽃장식예술부분에서 화훼소재로서 다양하게 이용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아름다운 우리나라 자생식물의 원예용으로 개발에 기여하고자 한다.

### 2. 조사대상 및 방법

본 연구를 시행하기 위하여 2006년 1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서울(남서울 화훼공판장, 구파발 화훼단지, 강남꽃도매상가, 양재동 꽃시장)지역을 중심으로 유통되고 있는 화훼소재로 유통되고 있는 자생식물을 조사하였다. 이와 더불어 한국자생식물협회에서 공시한 판매단가표를 기준으로 하여 조사 분석하였다.

조사되어진 자생식물은 원예적 분류에 따라 생육습성과 이용법을 파악하고자 1·2년초, 다년초, 관목, 교목, 덩굴식물로 구분하였다. 또한 화훼농가에서 재배시에 이용목적에 재배되어 지는데 이를 기준으로 절화와 분화로 구분하여 조사하였으며, 절화의 경우 절지, 절엽, 열매, 꽃 등 꽃예술장식에 이용되어 지는 형태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조사된 식물명에 대한 문헌검토는 원색 대한식물도감(이창복, 2003)을 위주로 고찰하였다.

### 3. 결과 및 고찰

조사된 국내 유통되고 있는 화훼 소재 중 자생식물의 전체현황은 절화는 총 39과 63속 81종이었으며, 분화는 총 62과 149속 267종이며, 총 조사된 자생식물의 수는 총 73과 174속 304종이 조사되었다.

절화에 비해 분화로 유통되어 지고 있는 자생식물종의 수가 월등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었으며, 분화의 형태로 자생식물이 생산·이용 및 판매되고 있었다.

#### 3.1. 절화의 사용형태에 따른 자생식물의 분류

조사되어진 화훼소재로 이용되는 자생식물을 원예적 이용에 따라 분류해 본 결과 전체 304종중 1·2년초가 총 8종, 다년초 총 224종, 관목 총 43종, 교목 총 11종, 덩굴 총 12종으로 다년초가 월등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었다. 1.2년와 다년초의 경우 절화보다는 분화의 형태로 재배 유통되어 지고 있었으며 화훼장식분야에서 식물심기, 조경용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이와는 달리 관목과 교목, 덩굴성 식물의 경우 주로 절화의 형태로 유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 3.2. 원예적 분류에 따라 자생식물의 분류

자생식물의 경우 절화에서 사용형태에 따라 절지, 절엽, 열매, 꽃등으로 나누어 분류할 수 있었다.

절지의 경우 수목의 가지를 잘라 그 가지에 달린 잎, 열매, 꽃등을 화훼소재로 사용하고 있는 형태를 말하며, 디자인의 골격이나 선, 공간을 메우는 부소재로 사용되고 있었다. 낙상홍(*Ilex serrata* THUNB.), 치자나무(*Gardenia jasminoides* for. *Grandflora* MAKONO), 화살나무(*Euonimus alatus* (THUNB.) SIEB.)등 총 57종이 조사되었다.

절엽은 잎만을 잘라 화훼소재로 사용하고 있는 형태로 잎의 형태가 명확한 것이 사용되고 있었고, 파초일엽(*Asplenium antiquum* Makino), 팔손이 나무(*Fatsia japonica* DECNE. et PLANCH.)등 총 3종이 조사되었다. 절엽의 경우 화훼시장에 많은 종류가 유통되고 있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 자생식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극히 작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추후 새로운 화훼소재로서의 자생식물탐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열매를 화훼소재로 사용하는 것은 청미래덩굴(*Smilax china* L.), 노박덩굴 (*Celastrus orbiculatus* THUNB.) 등 총 6종이 조사되었다. 이는 열매가 가지고 있는 형태, 색상을 화훼소재로 사용하고 있었다.

자생식물의 꽃을 잘라 화훼 소재로 이용하고 있는 것은 별개미취(*Aster koraiensis* NAKAI), 엉겅퀴(*Cirsium japonicum* var. *ussuriense* KITAMURA) 등 총 26종이 조사되었다. 꽃의 형태가 명확하고, 절화로 잘랐을 때 수명이 길며, 색이 선명한 종류의 자생식물들이 이용되고 있었다.

이외에도 절지와 열매가 모두 사용되는 소재가 총 6종이었으며, 절지와 꽃 모두가 사용되는 소재는 총 4종, 절지와 절엽의 형태로 사용되는 것이 총 1종이 조사되었다.

현재 화훼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대부분의 화훼소재들은 귀화식물이나 외국에서 도입되어진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본 조사에서 보듯이 상당수의 자생식물이 재배, 생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널리 유통, 이용되지 못하고 외면 받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를 토

대로 유통되어 지고 있는 자생식물들이 꽃장식예술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용되어 질수 있는 밑거름이 되고자한다. 또한 화훼소재로 자생식물이 이용되고 있는 이용율에 대한 정확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며 화훼소재로 이용될 수 있는 자생식물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참 고 문 헌

이창복, 2003. 원색 대한식물도감 상, 하, 향문사.

이종석외 1, 2002. 실내조경시 자생식물의 이용현황에 대한 연구, 한국화훼산업육성협회 화훼연구회지 10(2) 91-96.

조근호외 3, 1998. 한국 꽃예술작품의 자생식물 이용에 관한 연구, 한국화훼산업육성협회 화훼연구회지 7(2) 27-38.